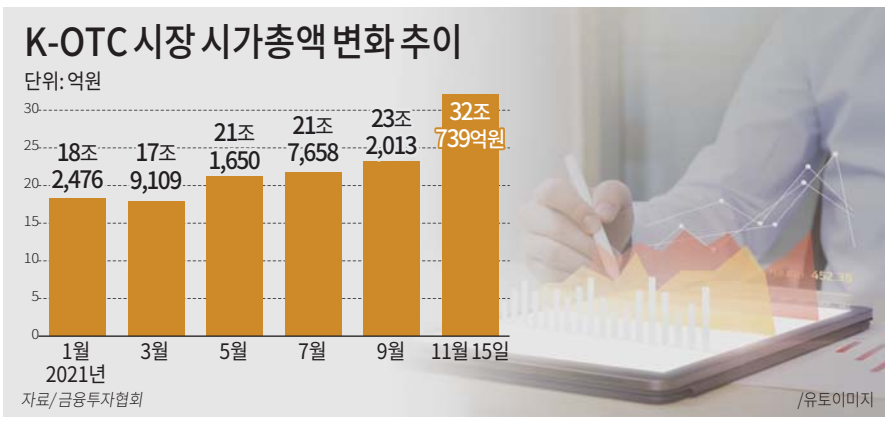
판 커진 장외주식 시장… 증권사, '플랫폼·정보' 강화 경쟁

삼성-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회원수 80만명·누적거래 20만건
NH 장외주식 거래 서비스 준비
KB 비상장 기업 분석자료 발간
DB 인기종목 분석 리포트 발간



장외주식 규모가 커지자 국내 증권사들이 플랫폼 경쟁과 리서치 자료 발간 등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에 나섰다. 상장 전 기업들과 미리 상호 교류를 맺으면 기업공개(IPO) 주관이나 비상장 벤처투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외주식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이다. 통상 기업의 상장 전일까지 장외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올해부터 공모주 청약에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됐지만 높은 경쟁률로 인해 대어급 공모주는 1~2주 배정에 그치는 상황이다.

◆증권사, 핀테크 업체와 '안전 거래 서비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K-OTC 시장 전체 시가총액 규모는 32조739억원이다. 올해 초(17조1828억원) 대비 86.66% 규모가 커졌다. 장외주식의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제도화한 K-OTC 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다. 같은 기간 거래되는 종목 수도 137개사에서 146개사로 늘었다.

장외주식은 K-OTC 외에도 여러 사설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국내 증권사들이 핀테크 업체와 손을 잡고 안전 거래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과거 장외주식은 개인과 개인의 일대일 거래가 이뤄져 허위매물이 많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특히 두나무가 삼성증권과 협력해 제공 중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거래 종목 수가 5991개사로 사설 플랫폼 중 독보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15일 기준 회원 수는 80만명 이상, 누적 거래 건수는 20만건 고지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피에스엑스(PSX)와 신한금융투자의 '서울거래소 비상장', 유안타증권의 '비상장레이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네고스탁' 등이 장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또 NH투자증권도 장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개인 고객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며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업체와 서비스 출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비상장 기업 리서치 활발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장 기업 리서치자료를 발간하는 곳도 늘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8일 첫 비상장 기업(무신사) 분석자료를 발간했다. 10월에는 유망 비상장기업 분석을 위해 리서치센터 내에 신성장기업솔루션팀을 신설했다. 신성장기업솔루션팀은 유망 비상장기업 분석 자료 발간뿐 아니라 관련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 부문 등에서의 영업 활동과 투자 기회 창출을 지원하고, 유관 부서와 고객의 상호 교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장 기업 분석에서 쌓은 탄탄한 역량을 활용해 성장성 높은 우량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기업과 성장 산업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꾸준히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투자의 시대/비상장기업', 사설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인기 종목 분석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리서치 자료를 꾸준히 발간 중이다.

독립리서치인 리서치알음도 매주 두 차례씩 비상장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동서울물류센터 방문

취임 후 첫 현장경영… "물류 인프라 투자, 멈춤없이 진행"

코로나 예방활동·물류 시스템 점검
"아워홈, 위기때마다 현장서 답 찾아"

지난 4일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가운데)과 김태준 사장(오른쪽)이 자사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 경영에 나섰다. /아워홈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 4일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 경영에 나섰다. 최근 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급격히 증가한 식재 수요를 감안해 물류시스템을 살피고 코로나19 예방활동과 물류 효율 극대화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은 깜짝 방문 형태로 진행됐다.

구지은 부회장은 구자학 전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 가운데 막내로, 경영학을 전공한 뒤 범LG기업에서 장자 승계 전통을 깬 경영인이 됐다. 2015년 아워홈 부사장에 올랐으며, 관계회사인 캘리스코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6월 아워홈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복귀했다.

2016년 개관한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는 구 부회장이 2014년부터 2년간 직접 기획·설계해 동종업계 최초로 식자재 특화 자동 분류 시스템을 구축한 첨단 물류기지다. 매일 3만개의 상품을 급식, 외식, B2C 등 1만여 거래처에 최상의 상태로 공급하는 아워홈 물류 시스템의 동맥과도 같은 곳이다.

이날 구 부회장은 동서울물류센터 점검을 시작으로 식자재 상품 입고부터 검수, 피킹, 상차, 출고까지 물류시스템 전 과정을 직접 살폈다. 이어 동서울물류센터장, 물류운영부문장,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세계 초일류 물류 시스템을 위한 향후 전략과 함께 현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구 부회장은 최근 물량 증가로 밤낮없이 가동 중인 동서울물류센터 직원들을 만나 "최고 수준의 물류 시스템과 여러분이 있었기에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격려하며 "최고·최초 아워홈만의 전통을 살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일류 물류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선두주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혁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초 온라인몰 전용 자동화 라인을 구축한 계룡물류센터와 같이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물류 인프라 투자는 멈춤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구 부회장은 물류센터 담당자들과 면담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구 부회장은 면담에서 현장 직원들에게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 확진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물류 현장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의 사소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까지 모두 보고받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라"고 주문했다.

구 부회장의 동울물류센터 현장 점검은 다음날 식자재와 상품을 실은 배송 차량들이 물류센터를 떠날 때까지 진행됐다. 취임 후 첫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구 부회장은 "아워홈은 위기 때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에 항시 귀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앞으로 구 부회장은 양산, 음성, 제주 등 지역별 아워홈 핵심 제조·물류 거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 경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1면 '中企대출 늘리는…'서 계속

대출 이자율 1%p 상승시 한계기업 비중 4%p 올라

한계기업은 3년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특히 한계기업의 63.3%(633개)는 중소기업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내년 금리 인상과 대출만기·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기업부실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연구원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이자율이 1%포인트(p) 상승하면 한계기업 비중은 약 4%p 증가한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1실장은 "전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값)이 증가하더라도 지난해 한계기업은 전년에 비해 3.8% 증가했다"며 "대출 금리 이자율이 높아질 경우 한계기업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출만기·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기업 연체율은 급격이 상승할 수 있다.

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지난 9월 기준 0.30%로 전달(0.36%) 대비 0.06%p 감소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같은기간 0.37%에서 0.30%로 7%p 줄었다. 금융지원 조치로 아직까지 부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내년 3월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던 중소기업의 부실이 연체율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관리가 되지만 중소기업 대출에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며 "내년 3월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연체가 이어지다 부도 등으로 이어져 (은행의)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中 생산자물가지수 증가폭 26년만에 최고

차이나 뉴스&리포트

한 달 사이 채소가격 2배 이상 급등

베이징 시내의 한 슈퍼마켓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겨울 동안 먹을 양배추를 쟁여놓기 위해서다. 슈퍼마켓은 양배추를 1인당 3개로 제한했지만 이미 오전 9시 모두 동이 나고 말았다.

11월 이른 한파보다 먼저 중국인들의 식탁을 흔든 것은 가파르게 오른 물가다. 이달 초 중국 정부가 각 가정에 생필품을 비축하라고 권고하면서 대만과의 전쟁설까지 돌았지만 사실 문제는 오를 일만 남은 식품 물가였다. 이상기후과 델타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한 달 사이 채소가격이 2배 이상 뛰는 등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기 대비 13.5% 상승했다. 26년 만에 최고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1.5% 올라 역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돼지고기 가격이 44% 하락했음을 감안하면 다른 식품의 가격 상승폭은 CPI를 크게 웃돌았을 것으로 보인다.

PPI가 무섭게 오르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장바구니 물가다.

보통 중국은 최대 명절인 춘절에 앞서 식품과 생필품 공급 안정에 나서는데 올해는 연말부터 이미 물가가 뛰기 시작했다. 예년보다 일찍 내린 눈으로 생산이 제한될 가능성은 커졌으며,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추가 봉쇄에도 대비해야 한다.

핀포인트 자산운용 장 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달 동안 일부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가격 전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